



따뜻한 봄날 미니축구로 몸 좀 풀어볼까

광주의 낮 기온이 22.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17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미니 축구를 하며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해질 18:42, 달뜨기 04:51, 달지기 16:19

기름 해갈 '단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20~8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 13/16, 보성 비 12/15, 순천 비 12/14, 여수 비 12/13, 영광 비 12/15, 나주 비 12/15, 진도 비 12/15, 완도 비 11/14, 전주 비 11/14, 구례 비 12/15, 군산 비 10/13, 강진 비 12/14, 남원 비 10/13, 해남 비 12/15, 흑산도 비 10/13, 장성 비 12/15. 생황지수: 수면 50, 운동 20, 빨래 20.

EBS 연계율 70% 유지... 영어지문 활용은 축소

수능개선위 '출제요류 개선·난이도 안정화 방안' 발표

만점자 줄이게 영역별 고난도 문제 나올듯

검토진 독립성 강화... 20일 전남대서 공청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학수능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까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반복되는 수능의 출제 요류를 막는 차원에서 문제 검토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문학점검위원회'가 신설된다. 수능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는 17일 서울교대에서 '수능 출제요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30%로 낮추고 동일한 주제의 비슷한 지문이 활용된 문항을 2016학년도 20%, 2017학년도 40%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다른 방안으로 영어 읽기평가에서 '대외의파'(목적, 주장, 주제 찾기)와 '세부정보'(지문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를 묻는 문항에 한해 EBS 교재와 다른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이 두개 유형의 문항은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평가에서 EBS 연계문항 19개 가운데 8개를 차지했다. 영어지문 연계방식 개선의 검토는 최근 수험생들이 EBS 교재의 해석본을 암기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능개선위는 또 수능 난이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집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가 과도하게 발생해 실수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영역별로 고난도 문제가 수능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는 영역별 만점자가 영어 3.3%, 수학 B형 4.3%로 각각 수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변별력 논란이 제기됐다. 출제 요류와 관련해서 출제진과 검토진

수능개선위원회 수능개선 시안 주요 내용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현행, 개선. Rows include 수능 계획 수립, 수능출제과정, 수능검토과정, 난이도 안정화, 이의신청처리, 수능 결과 점검, 수능 EBS 연계.

의 이원화를 강화하고 검토진의 위상을 높이는 대책이 제시됐다. 그동안 출제위원단 소속이던 평가위원을 검토위원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검토위원장에 별도의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 검토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문학점검위원회'가 신설된다. 수능개선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의 출

제기간을 늘리고 인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구성한 수능개선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내부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했고, 오는 20일 전남대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연다. 교육부는 시안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수능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나서 2016학년도 수능시행계획에 반영하고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수능 작년보다 어려워질듯

입시전문가들 전망

올해 대학수능능력시험(11월12일)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수능개선위원회가 발표한 수능 개선안 시안에서 난이도 안정화 방안이 언급되며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4.3%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수학B형이나 3.37%에 달한 영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올해는 수학B형의 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작년에 불이익을 받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제도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영어영역에서 EBS 교재의 지문을 수능에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영어는 EBS 교재 지문의 직접활용 문항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되면 EBS 교재 이외에 다양한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과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일단 70%대로 유지되는 만큼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비연계 부분에서 변별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임성호 대표는 "고3 수험생들은 작년부터 난도를 조금 높여서 준비하는 학습과 EBS 변경 문제들에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초·중·고 방과후학교 영·수 선행학습 허용된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0억 한정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대출출시!! 연이율 1.25~1.4% 대출기간 3년/5년 최고 2천만원.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주점 062)525-2774~5, 삼각점 062)525-2776~7.